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노년시대

실버NEWS

삶의 지혜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

노년시대.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다.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진 실버계층, 마음껏 일하며 보람된 노후를 준비한다.



“폐지 모아 내다 팔며 열심히 살아요”

건강한 노년 보내는 공현진 이범래 할머니

“나야 잔병치레를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정정하다우. 힘들어도 먹고는 사니, 내 걱정은 말고 우리 아들 장가나 보내주시구려.”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내다팔며 어렵게 살고 있는 이범래 할머니(75세)는 고령에다 공핍한 가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환한 모습이였다.

서울 출신으로 4살 무렵 부모를 모두 여의고 공현진 친척집으로 떠남겨진 이 할머니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제2의 고향인 공현진에서 70여년을 살아왔다.

그동안 부산 출신의 남편과 결혼해 2남2녀의 자녀를 두며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남의 집 농사일부터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세월이 흐르면서 장성한 자식들은 모두 객지로 떠나고 남편과 함께 노년을 보내던 할머니는 지난 2004년 남편을 잃었다. 한 때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지만, 남편 사망 직전에 귀향한 셋째 장익찬씨(44세)가 있어서 노년이 외롭지만은 않다고 한다.

“사는 게 어렵지만, 그나마 아들이 옆에 있으니 외롭지는 않아요. 자식들 없이 외롭게 혼자서 사는 노인들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저는 행복한 셈이죠.”

김 할머니는 7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집 주위의 텃밭을 일구며, 틈틈이 폐지와 빈병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하루 1~2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린다. 돈 벌이는 폐지수거에 비해 일용노무직이 좋지만, 일거리가 자주 없다고 한다.

“이전에는 폐지 줍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이 일도 경쟁이 심해서 수입이 전과 같지 않아요. 그만큼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이처럼 어려운 노년을 보내는 이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사람은 역시 아들 익찬씨다.

서울에서 텃프트럭 기사로 일하던 익찬씨는 장비를 모두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새집을 짓고 어머니와 살고 있다. 벌어 놓은 돈을 집 짓는데 다 사용하고 지금은 건축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일거리가 없을 때는 어머니와 함께 폐지를 줍는다.



고성지역에 폭설이 내리던 지난 11일 일하러 나가지 못한 이범래 할머니가 부엌에서 반찬 거리를 손질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할머니는 다른 노인들처럼 경로당에도 다니고 복지화관에도 다니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싶지만, 형편이 어렵다 보니 그러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가 무슨 신문에 나올거리가 되나요, 자주 나한테 뭘 물어보지

말고, 우리 아들 장가나 좀 보내주시구려.”

이 할머니는 장성한 아들이 자신 때문에 장가를 못가는 게 아닌 가 염려스럽다는 듯 연신 아들 장가를 보내달라고 했다.

박승근 기자



도원1리 노인회 2011나눔성금 기탁

토성면 도원1리 노인회(회장 전기덕)는 지난 4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황중국에게 희망2011나눔성금 20만4천원을 기탁했다.

최광호 기자

우리마을 경로당 / 간성읍 신안6리

간성읍 시가지권 위치 어르신 복적

지난해 7월 새롭게 문을 연 간성읍 신안6리 경로당은 마을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다.



지석근 노인회장

신안6리 경로당은 간성읍 시가지권에 위치한 유일한 경로당으로, 일부러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군청 등 기관에 불일을 보러왔다가 들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운동삼아 찾아오는 어르신들도 많다. 그래서 신안6리 경로당은 늘 어르신들로 북적거린다.



지난해 7월 새로 개원한 신안6리 경로당 전경.

지석근 회장(79세, 사진)을 비롯한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모여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과 마을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것이 없을가 늘 고민한다고 한다.

지석근 회장은 “우리 노인들

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여가생활 공간이 생겨 좋는데 운영비가 현실적이지 못해 조금은 아쉽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읽고난 고성신문은 이웃과 함께 보세요